농촌마을 축제 육성 지역공동체 살린다

도, 해마다 5개 대표축제 선정 사업비 지원

전통문화·향토자원 보전…도농교류 활성화

전남도가 농촌마을 축제 중 매년 5개의 대표축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공동체가 간직한 전통문화와 향토자원을 잘 활용하는 마을의 축제가 대표축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도는 10일 "농촌지역 자원을 소재로 한 축제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2년 또는 3년간 마을당 2000만원 내외로 축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촌 축제를 통해 지역공동체을 유지시키고 도농 간 교류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농촌축제란 농촌의 사회·문화·자연자원 등을 소재로 하는 마을 단위를 배경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물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축제를 말한다.

올해는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 크리스마스 축제'를 비롯한 도내 5개 농촌마을 축제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축제의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주민 역량교육과 대외 홍보활동에 이르기까지 주민 주도로 추진하게 된다.

이들 축제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관광 축제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농촌에서만 보고 즐길 수 있는 소재로 하며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 같은 농촌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민속놀이, 농촌체험 등을 계승, 보전할 계획이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다양한 농촌의 역사와 향토자원을 소재로 이색적인 농촌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해 도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천시립예술단 뮤지컬 '태백산맥'

서울 공연 성황리 마쳐…전석 매진

순천시립예술단이 주축이 돼 만든 창작 뮤지컬 '태백산맥'이 서울공연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진〉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6~8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태백산맥'이 극장 3층까지 만석을 이뤘다.

뮤지컬 '태백산맥'은 작가 조정래의 동명 대하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한국전쟁 시절 비운의 삶을 살다간 염상진과 염상구 형제의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해 열린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폐막 기념으로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초연된 바 있다.

조정래 작가는 매회 무대 인사를 통해 "소설이 시작된 고향 순천에서 뮤지컬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반가웠고 의미 있다"며 "10여년전 영화로 만들어질 때와 달리 뮤지컬로 제작될 때는 사회적 말썽이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역사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위성신 씨는 "작품을 잘 만들어서 순천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이 시대의 관객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순천=예정열·김은종기자 ejkim@

전남도,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강화 주력

올해 1차 5개년 계획 마무리

115억 투입…질적 성장 추구

일자리 1천여개 창출 목표

전남도는 10일 "올해 사회적기업 1차 5개년 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니만큼 양적으로 성장한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포함 115억원을 투입해 100여 개 기존 기업을 지원하면서 신규로 35개 정도를 지정해 1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약 13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면 민선 5기 공약사항인 '사회적기업 100개 육성'을 초과 달성하게 된다.

올해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선도형 사회적기업' 공모를 통해 시제품·디자인 등 사업 개발,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 기업 지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체 판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녹색나눔' 온라인마켓 활성화, 유통인 초청 팸투어, 체험상품 개발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2년 지원 한도인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전환율을 높이고, 경영·회계·판로 등에 부족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프로보노('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 멘토링 등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창업학교 등을 통한 유망사업가 발굴, 시제품 개발, 판로 개척 및 온라인마켓 개장 등의 시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는 2010년 15억원에서 2014년 115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고 기업 수는 33개에서 97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도내에는 인증 41개, 예비 61개 기업 총 102개 사회적기업들이 1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42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 청정해역 햇미역 고흥군 청정 해역에서 가공용 햇미역 채취작업이 한창이다. 고흥군은 올해 2493ha(305어가)의 어장에서 9만5000여 t의 미역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영암에 가야금 산조 테마공원

전국 첫 21일 오픈…공연장·기념관 등 조성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한 가야금 산조 테마공원이 오는 21일 문을 연다.〈사진〉

영암군은 사업비 155억원을 들여 영암 랜드마크인 월출산 기(氣)찬랜드 인근 2만8636㎡ 부지에 산조공연장, 기념관을 비롯해 사당,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이 공원은 '가야금 산조' 창시자인 김창조 선생의 위업을 드높이고 고유 전통 음악의 보존·전수·연주 공간으로 활용된다.

기념관에는 인간문화재 양승희를 비롯한 서울, 부산, 전주, 화순에서 가야금·장구·단소·산조음악 관련 자료 등이 전시된다. 이 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개관기념으로 23~24일 이틀간 '제3회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이 열린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장성 필암서원 고문헌 디지털화 추진

전남대 도서관과 협약

1334종 3760책 수록

장성 필암서원의 고문헌 자료가 디지털화된다.

장성군은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남대학교 도서관(관장 성애순)과 필암서원 고문헌 디지털화 및 이용 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하서집을 비롯한 문집류와 유교 경전, 서원 관련 서적, 족보 등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에 보관돼 있던 고문헌 1334종 3760책이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전남대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을 개관한 군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후손들이 설립한 하서 학술재단과 양영 재단으로부터 문헌을 기증받아 일부 서적과 유물은 전시하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해 왔다.

장성군 관계자는 "필암서원 고문헌이 전산화돼 일반인은 물론 학술연구자에게 제공돼 조선시대의 소중한 역사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590년(선조 23년)에 세워진 호남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앞두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